

고2 문학 동아

1(1)(1)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기출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 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이 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 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② 반어적인 의문을 주로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현재형 진술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④ 복합적인 감각들을 동원하여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유사한 시어의 반복과 내용의 열거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삶의 내면이다.
 ② ㉢은 ㉤과 호응하여, 시장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화자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③ ㉣은 은유의 기법으로 ㉢이 세상의 으뜸이 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④ ㉤은 ㉣과 의미상 유사하게 대응하며 ㉢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한다.
 ⑤ ㉥은 ㉠~㉤을 종합한 것으로서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주제를 드러낸다.

-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의미를 열거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②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정서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 전개에 변화를 주고 있다.
 ④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에 대한 화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인만이 쓸 수 있고, 시인만이 알 수 있는 글이다.
 ② 시인의 특별한 경험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
 ③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은 글이다.
 ④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글이다.
 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글이다.

-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일화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과거형 진술을 통해 회상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도치법을 활용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하는 화자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

6. 이 시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는 ‘시인’의 의미를 진지하게 파악해 보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
 - ②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등을 헤맨 것은 ‘시가 뭐냐’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깊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 ③ ‘남대문 시장, 빈대떡’은 서민적 삶의 공간 및 서민들의 음식을 대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거야.
 - ④ ‘인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할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어.
 - ⑤ ‘시인’을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정한 시인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거지.

7. ㉠의 ‘시인’의 시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 ②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 ③ 힘겨운 삶 속에서도 선한 심성과 인정을 지닌 사람
 - ④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는 사람
 - ⑤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부정적인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사람

8. 시에 관한 다음 규정들 중,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시는 당대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반영하여 현실의 억압을 폭로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학 예술의 한 갈래이다.
 - ② 시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의 가장 순수하고 극단적인 양식이며, 관습적인 언어를 전복하고 해방적 언어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장르이다.
 - ③ 시는 보통 사람들의 가장 인간적인性情(性情)을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휴머니즘의 이상을 추구하는 일상의 예술이다.
 - ④ 시는 희로애락애오욕의 인간적 정념을 운율이 있는 음악적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이며, 고도의 형식적 완결성을 이상으로 삼는 예술이다.
 - ⑤ 시는 주체를 대상에 이입하는 투사(投射)의 방법과 대상을 주체와 동일화시키는 동화(同化)의 방법을 통해 주체와 세계의 조화로운 합일을 추구하는 예술이다.

9. 이 시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대문 시장 안’은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이겠군.
 - ② 화자가 저녁에 떠올린 생각은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겠군.
 - ③ ‘고귀한 인류’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고난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지키는 것이 ‘슬기롭게 사는’ 삶이라고 보았군.
 - ⑤ 마지막 행의 ‘시인’은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을 의미하겠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p style="text-align: right;">- 김宗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p>

10.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구조를 통하여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② 도치를 통해 시를 이끌어 가는 화두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적절한 상대 높임법의 사용으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이로운 대상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다.
 - ②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경 변화를 나타낸다.
 - ④ 일상적 생활과 연관된 삶에 대한 통찰이 드러난다.
 - ⑤ 대비적인 삶의 모습이 지니는 각각의 가치를 나타낸다.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인이면서 시인이 못 된다고 한 것에는 화자 자신에 대한 겸허한 인식이 나타난다.
 - ② ㉡ : 공간의 이동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화자의 고민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 ③ ㉢ :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을 현재형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④ ㉣ :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 평범한 사람들이 시를 써야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시인의 생각이 드러난다.

13. 이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인'은 '슬기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군.
 - ② '누군가'는 '나'로 하여금 '나'의 시를 관조하게 만드는군.
 - ③ '남대문 시장'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공간이군.
 - ④ '고귀한 인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남대문 시장'은 '그런 사람들'의 '슬기로움'을 보게 되는 곳이군.

14. '남대문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화자가 시의 의미를 깨닫는 공간이다.
 ㄴ.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이 있는 공간이다.
 ㄷ. 화자가 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공간이다.
 ㄹ. 슬기로우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15.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질문	1행
↓	
화자의 반응	2행
↓	
㉠	3~6행
↓	
화자의 생각	7~15행

- ①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과정
- ②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 ③ 화자의 반응을 심화하는 과정
- ④ 질문의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과정
- ⑤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생각하는 과정

고2 문학 동아

1(1)(1)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서술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 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3]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질문	누군가로부터 시가 뭐냐는 질문을 받음
↓	
화자의 반응	㉠
↓	
질문에 대한 화자의 탐색	㉡
↓	
화자의 생각	㉢

1.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2.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3.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4. 이 시의 화자가 거쳐 간 공간을 쓰고,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5. 화자와 시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했을 때, @에서 드러난 시인의 의식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6. 화자가 답을 찾은 공간이 어디인지 쓰시오.

7. 화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쓰시오.

8.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9. 이 시의 시상 전개방식을 쓰시오.(2가지)

10. 이 시에서 ‘그런 사람들’의 반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이 시에서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12. <보기>의 서술자와 이 시의 화자가 주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부리는 거 아니는지 모르겠네요.”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일 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나는 적어도 내 첫 손자가 장가드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평소의 내 과욕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

어제는 커다란 시장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사 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여자와 만나기도 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왔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정답 및 해설

1) <답> ⑤

‘사람들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인 ‘이고’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시어를 열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 <답> ⑤

㉔은 앞에서 지칭하거나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㉑과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시인이라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3) <답> ①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에서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의 의미를 열거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영탄적 어조, 설의적 표현, 상징적 소재, 반어적 표현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

4) <답> ③

화자는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 있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시인이라고 하였다. 즉, 그런 사람들의 평범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시라고 본 것이다.

①, ② 화자는 일상에서 만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두 시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시라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④ 화자는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⑤ 화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답> ④

이 작품에서 반어적 표현을 활용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④

‘인정’은 시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화자가 바라본 건강한 서민들의 속성 중 하나를 의미한다. 인정을 지닌 서민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정’을 시인의 필수적인 속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답> ③

화자는 인간적인 모습을 간직한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서 ‘시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들은 삶의 어려움 속에

서도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8) <답> ③

윗글의 메시지는 착하고 인정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인들이 곧 진정한 시인이며, 그들의 삶이야말로 참다운 시의 모델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술의 근원에는 인간의 삶이 있고, 인간다운 삶의 함양을 위해 봉사하는 예술이 진정한 예술이라는 휴머니즘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이 곧 예술의 출발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이는 민중의 삶의 현장과는 다른 곳에서 고급스러운 예술에 종사하는 존재로서의 시인이라는 관습적인 통념, 대중적인 것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언어 예술의 정화가 시라는 관념 등과 결별하는 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를 정의한다면 ③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9) <답> ③

‘고귀한 인류’라는 표현은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누군가’는 화자에게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귀한 인류’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① ‘남대문 시장 안’은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던 화자가 이 시의 7행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공간이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지닌 가치를 발견한 것에 해당한다. ② 화자는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뒤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고 나서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 빈대떡을 먹을 때’ 떠올랐다고 하면서, 진정한 시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 화자 나름대로 떠올려 본 대답에 해당한다. ④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 속에는 화자가 생각하는 슬기로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가 들어 있다. 이는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맑은 본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마지막 행의 ‘시인’이 지닌 함축적 의미는 ‘힘들어도 귀한 본성을 잃지 않는 소박한 사람’, ‘인간이 지녀야 할 덕성을 조화롭게 갖춘 사람’ 같은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을 뜻하는 시어로 볼 수 있다.

10) <답> ②

이 시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시인이 시에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이후 시의 전

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시가 뭐냐고'라는 질문이며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도치를 사용하였다.

①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상과의 합일보다는 대상이 가지는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이 시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상대 높임법 중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와의 거리가 좁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시에는 '시인이 못 됨으로'에서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만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11) <답> ④

이 시는 시인이 다루어야 하는 소재와 주제는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힘겹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기쁨을 찾아내는 일상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① 이 시는 상식적이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이롭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삶에 대한 허무 주의적인 태도보다는 오히려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고가 드러난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사색은 무르익지만 화자의 심경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시인의 삶과 사람들의 삶을 대비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12) <답> ⑤

이 시는 평범한 사람들이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시에 담겨야 할 삶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정을 지닌 사람들의 삶 자체가 시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세상의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를 써야 할 것이며, 그런 삶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① 시인에게 시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자신이 시인이 못 된다고 한 것은 겸허한 자기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치열함과 진지함을 보인다. 시의 의미를 찾는 그 공간은 서민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시인은 일반적이며 상식적인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생각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순간을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으며, 앞의 '그런 사람들이'를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도치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답> ②

'누군가'의 질문을 받고 '나'가 진정한 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나'가 진정한 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14) <답> ①

화자는 '시가 뭐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길을 걷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그 답을 찾게 된다. (ㄱ) 남대문 시장에서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화자는 그들이 바로 시인이며, 그들의 삶이 시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남대문 시장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역동적인 공간인 것이다.(ㄴ)

ㄷ. 화자가 남대문 시장에서 본 것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화자는 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 ㄹ. 화자가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15) <답> ②

화자는 질문에 대한 일차적 반응 후에 다양한 시적 공간들 속에서 진정한 시인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고된 삶 속에서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서술형

1) <답>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2) <답>

시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여러 곳을 걷다가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답을 깨닫게 되었다.

3) <답>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량하고 마음이 좋고 인정이 있어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시인이라고 생각했다.

4) <답>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 서울역 앞 → 남대문 시장 이 시의 화자가 거쳐 간 공간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공간으로, 화자가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을 깨닫는 공간이다.

5) <답>

시를 수십 년간 써 왔음에도 자신은 제대로 된 시를 쓰

지 못하는, 시인으로서 부족한 존재라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 진정한 의미의 시와 시인에 대해 고민하는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등

6) <답>

남대문 시장

7) <답>

화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8) <답>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밝고 명랑한 심성으로 인정을 가지고 살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9) <답>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답>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어에 집중하게 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1) <답>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시인

12) <답>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본받을 만한 긍정적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